

2023년 계묘년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미래 가치창조의
혁신도시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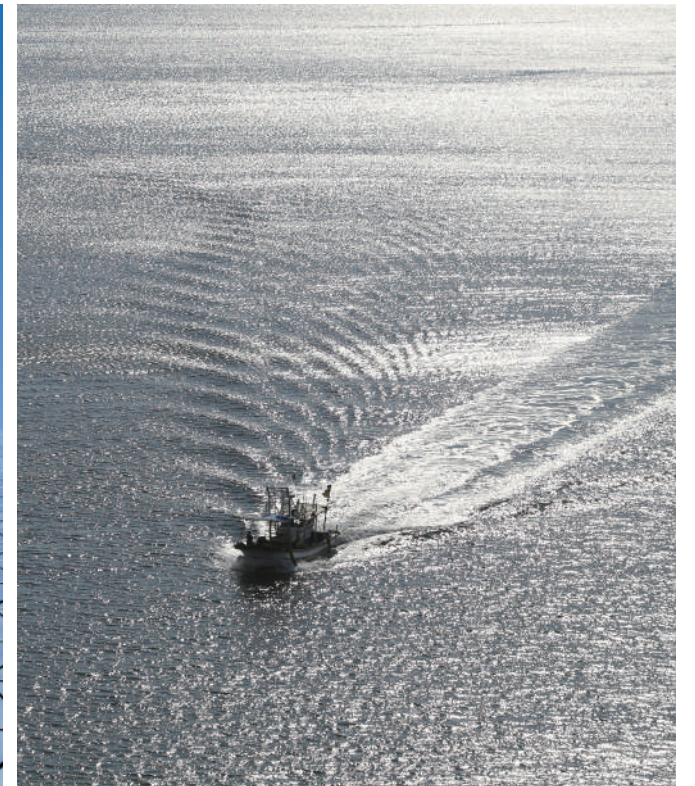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MONTHLY MAGAZINE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6년 연속 수상

굿모닝 인천

2023 02 FEBRUARY— vol.350



굿모닝

2023. 2 FEBRUARY

생명, 연에서 찾다



‘생명, 연에서 찾다’를 주제로 10년이 넘게 관곡지 연밭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단지 생명과 죽음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죽으면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자연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뿐이다. 연을 집중해 찍다 보니 연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연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다. 사진가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비록 생명의 신비로움을 연에서 찾지는 못했으나 내 영혼은 이미 연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표지 사진 하늘, 바다, 땅으로 열린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유준호(공보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안영우·홍승훈·유승현·전재천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관실 032-440-8306



<굿모닝인천> 2월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 금속활자와 세계 최고 목판 인쇄술을 탄생시킨 인천. <굿모닝인천>이 오는 5월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정족사고'와 '외규장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실 서적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던 사고^{紙庫}들입니다.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인천으로 날아오는 철새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천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더 인천'은 동네 목욕탕을 돌아봤으며, '골목길 TMI'는 정겨운 부평 평리단길을 걸었습니다. '트렌드 인천 2023'은 취미에 몰두해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인천 오감 레시피'에선 영종도 새우젓 볶음동파스타 조리법을 알아봤습니다. 계묘년 2월도 <굿모닝인천>과 함께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04 인천 미소 2023년에도 좋은 친구로 外	44 의회 뉴스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신년 인사회 개최 外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46 인포 박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外
06 더 인천 ② 인천의 목욕탕	50 문화 쏙인 슬기로운 방학 생활
12 골목길 TMI ⑧ 부평 평리단길	52 문화 캘린더 '김동우 사진전: 편도, 몽우리돌을 찾아서' 外
18 인천 오감 레시피 ② '영종도' 새우젓 볶음 파스타	54 컬러링 인천 서구 어느 골목에서
22 트렌드 인천 2023 ② 취미 더 머니	56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26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목조각장 이방호	57 편집 후기 설날 덕분에 새해 '리셋' 外
28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② 인천을 사랑하는 겨울철새들	58 인천의 아침 우리나라 최초 군함 입항 120주년
3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특집 정족사고 외규장각을 가다	59 한 컷 인천 소원지와 달집태우기
38 새 책 〈길을 묻다〉 〈하루 교양 공부〉	
39 이미지 뉴스 정신건강 심리 지원 서비스 다각화	
40 시정 뉴스 시민 의견 반영한 전동차 디자인 확정 外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i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2023년에도 좋은 친구로

‘시간이 쏠살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벌써 해가 바뀌어 2023년이라니. 아직 2022년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아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지난해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는 〈굿모닝인천〉을 매달 읽은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기대합니다.

— 이옥선 계양구 황어로

‘나’ 같은 사람이 주는 위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고 공항철도를 탑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아침엔 남보다 일찍 서둘러야 하고, 저녁엔 늦은 귀가가 일상입니다. 〈굿모닝인천〉의 ‘더 인천: 일상’ 도시의 낮과 밤 기사를 읽다가 나같이 매일 낮과 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곤 울컥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 최진호 중구 흰바위로

올해 새 참기름과 고춧가루는 ‘수인골목시장’에서

해가 바뀌면 우리 집 연례행사 중 하나는 올해 쓸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장만하는 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집안 어른들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다. 〈굿모닝인천〉의 ‘골목길 TMI’ 수인골목시장 기사를 읽으며 올해는 여기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고소해집니다.

— 황은지 부평구 동수로

더 좋은 인천을 기대하며

새해가 되면 올해는 더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계획도 새로 세우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올해 인천시민 모두에게, 그 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살뜰히 살피며 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 홍민철 서구 봉수대로



우리 가족 건강을 부탁해

글 이다연(부평구 길주남로)

우리 가족이 삼산월드체육관과 함께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살기 시작한 지는 25년도 넘은 것 같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온 때, 나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이니 기억이 날 리 만무할 터. 그런데 바뀐 말하면, 내가 기억하는 시절은 모두 이 동네에서 시작된다. 그때는 우리 아파트가 정말 커 보였다. 어린 내 눈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집 앞으로 나서면 자동차들이 쾅쾅 달리는 큰길은 너무 무서웠고, 또 호기심도 났다. 저 길 너머엔 뭐가 있을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지, 이런 상상을 하곤 했다.

삼산월드체육관이 생겼을 때는 생생히 기억한다. 집 근처에 수영장이 생긴다니 부모님은 공사를 할 때부터 엄청 기대하셨다.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이 문을 연 이후 우리 가족은 모두 여기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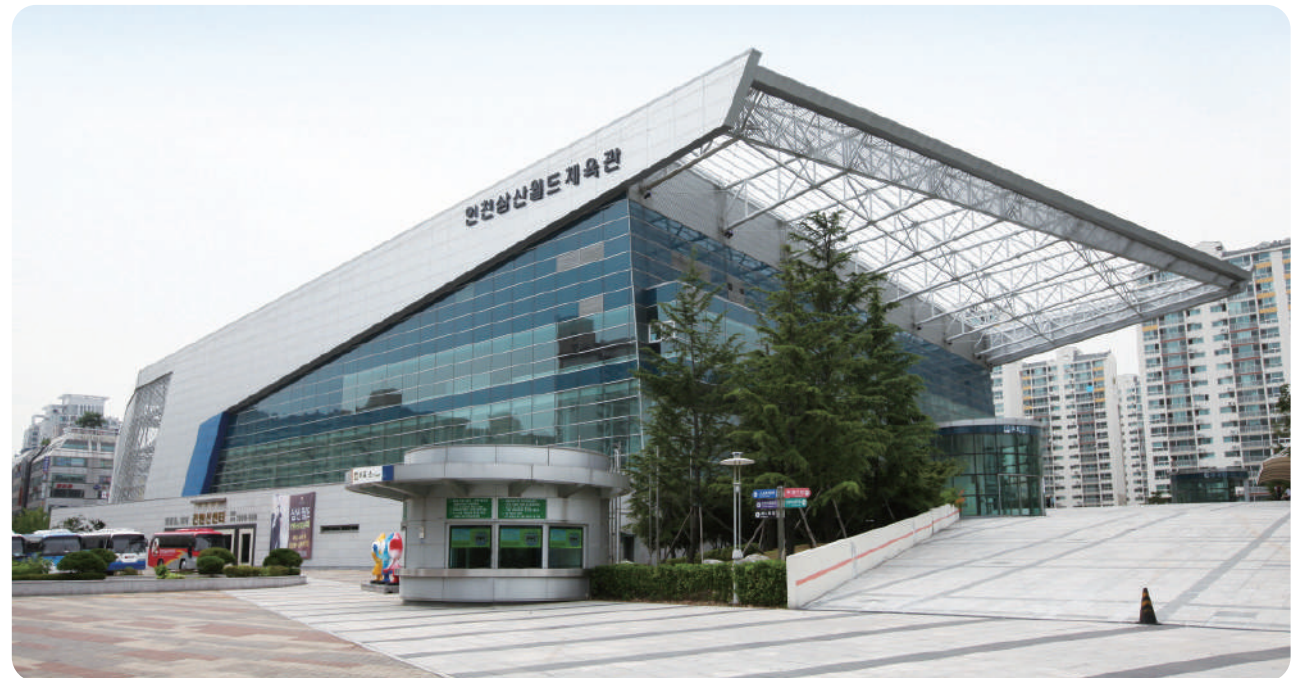
내가 그나마 콜라병을 면하고 수영을 조금 하게 된 것도 다 삼산월드체육관 덕분이다. 나는 지독히도 물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어린이 수영을 다녔는데, 언니는 자유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형부터 배영, 평영, 접영 한 가지씩 영법을 마스터하며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데 나는 한동안 발차기만 했다. 그래서 그 만두었다가 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하다 결국엔 자유형만 겨우 마치게 되었다. 지금도 주말이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수영을 한다. 물에서 한바탕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무엇보다 밥맛이 좋아진다.

사실 내가 늘 곁에 있던 삼산월드체육관에 ‘급’ 애정이 더 생긴 건 바로 배구 때문이다. 시작은 김연경 선수에서 출발한다. 실력이야 월드 스타이고,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그가 출연한 방송을 보며 내심 ‘덕심’을 키웠다. 그러다가 그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터스’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월드 스타를 직접 보는 데 이토록 좋은 환경을 가진 걸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고, 지난겨울부터 열심히 응원 중이다.

삼산월드체육관 근처에 살기에 건강도 챙기고 배구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올해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수영 강습을 신청해 드릴 계획이다. 덕분에 효녀까지. 삼산월드체육관,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해!



더 인천

목욕탕

‘더(The) 인천’을 더(More) 알아가다. 지금 발 딛고 선 도시, 살아가는 동네, 그 안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인천 곳곳에 깃든 인천 사람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이번 호에는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 수증기 자욱한 따뜻한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복잡한 세상은 잠시 잊는다. 뜨끈뜨끈 몸이 데워지고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 순간만큼은 그냥 참 좋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 내밀한 공간에 사진기와 녹음기를 들이밀어도, 더구나 코로나19 여파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든 시기인데도 따듯이 맞아주시는 목욕업 종사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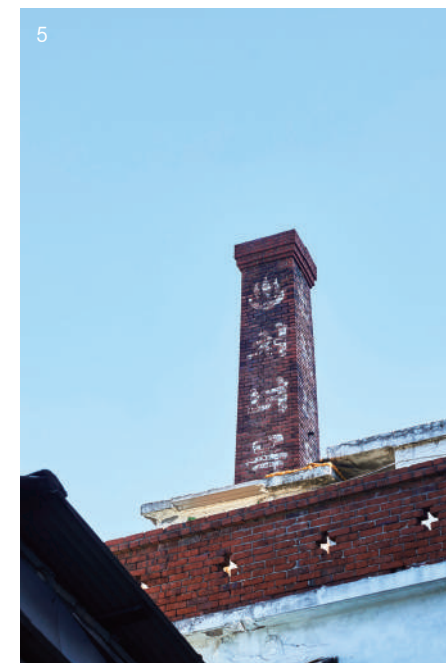
모락모락, 굴뚝에서 피어난 역사

‘다 ‘때’가 있다.’ 목욕탕 사진집이 있다. 작가는 지금은 사라진 부산의 한 목욕탕을 3년간 기록했다. 탕을 드나드는 사람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태리타월’ 하나로 삶을 부단히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별거송이로 담았다. 탕 안의 ‘살맛 나는 온도’와 ‘몸에 감기는 물의 촉감’을 남기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했다.

선달그름이 다가온다. 이맘때면, 뜨끈뜨끈 목욕탕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만 싶어졌다.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의 목욕장은 209개소다. 최근 10년간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 온기를 잃었다. 쌓이고 쌓여온 삶의 내밀한 표피가 벗겨지는 것이 안타까워, 동네 목욕탕의 따스함이 느긋이 온전히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때’마다 ‘때’ 미는 것이 당연해 역사랄 것이 무엇인가도 싶겠지만, 대중 목욕 문화에도 그 시작은 있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 쏟아지는 신문물, 그중에는 목욕탕도 있었다. 일본인들이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에 자리잡으면서 탕옥湯屋, 욕장浴場, 욕탕浴湯, 목욕간沐浴間이라 불리는 세상에 없던 공간이 생겨났다. 한여름에도 갓 쓰고 도포 입던 선비들에게 별거벗은 채로 다른 사람과 섞이는 일이 가당키나 했겠는가. 하나 개항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1920년대 추정, 동구 화수동에 조선인 공설 욕장이 생겨났다. 광복 이후에 일본인 전용 탕은 조선인의 차지가 됐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동네마다 ‘탕’이 생기고, 그러다 한증막을 갖춘 사우나가 들어서고, 먹고 놀고 자고 땀으로 씻는 찜질방이 생겨났다. 그렇게 욕탕의 온기가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1. 문 닫은, 중구 관동의 '제일사우나' 남탕
2. 계양구 임학동 '웨밀리사우나'에서의 망중한
3. 1923년 문 연 월미도 조탕의 대욕실 풍경 (인천시립박물관)
4. '이태리타월' 하나로, 삶을 살아내는 세신사들. '웨밀리사우나'
5. 중구 신흥동, 굴뚝만 남은 '처녀목욕탕'. 1940년대, 지역에서 '처음' 문 열어 이름이 '처녀'다.



수증기처럼 사라진 날들

2022년 10월, 달력이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날짜다. 그날 이후, 중구 관동의 ‘제일사우나’ 남탕 안의 시간은 멈추었다. 냉탕도, 온탕도, 열탕도 차디차다. 그리운 온기,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린 날들. 뜨거운 물을 주의하라고 열탕 벽에 새긴 ‘빨간 손바닥’ 마크가 낯설게 시선을 붙잡는다.

욕탕도 탈의실도, 목욕탕 한편의 구두방도 이발소도 텅 비었다. 1970년대 한창때는 먹고 자는 직원만 20여 명이었다. 주인보다 돈을 더 버는 세신사도, 평생 몸을 굽힌 끝에 목욕탕을 차린 구두닦이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떠났다. 나무를 태워 뿜어내던 후끈한 열기, 향긋한 비누 거품 냄새, 공중에 흩어지던 가위질 소리.... 쉬이 지워지지 않을 삶의 기억만 텅 빈 공간에 머문다.

‘관동 2가 8번지.’ 아버지의 자리다. 제일사우나 김근동(77) 대표의 아버지이자 창립자인 고故 김수조 씨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왔다. 벚꽃 잎이 눈처럼 휘날리던 새하얀 세상, 뜨겁게 몸을 감싸던 욕탕 물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30대에 고향 대구에서 섬유 사업가로 성공한 그는 인천으로 올라와, 그때 그 목욕탕 건물을 사들여 새로 지었다.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다. 1965년 목욕탕 문을 열 당시, 3층 건물에 건평 892m²(270평)로 이 일대에서 규모가 제일 컸다.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났느냐며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1. ‘아~ 좋다. 시원하다.’ ‘휠밀리사우나’
2. 지난해 가을 문 닫은 ‘제일사우나’ 남탕
3, 4. 동구 인천송현초등학교 앞, 51세 된 ‘세계목욕탕’



아버지와 약속, 지켜낸 시간

자그마치 58년이다. 그 긴 세월 이 동네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때론 고단했지만 행복했다. 함께 나이 들어갔다. 어느덧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더 짧아져만 간다.

“돈을 못 벌어도, 적자가 나도, 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 문 닫지 마라. 목욕탕 해서 오 남매 다 학교 보내고 출가시켰다. 이제야 문 닫는 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목욕탕을 끝까지 지키라고, 아버지는 말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한 10년은 돈벌이가 안 됐다. 좀 나아질까, 리모델링했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속으로 ‘영감 웃긴다’라고 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다음 날, 바로 문 닫고 끝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6년 더 목욕탕 문을 열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켰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 죽을 때까지 해야, 진짜로 지키는 거지...” 버티고 버텨오다, 이제 정말 끝이 났다. 이번 설 이 지나면 여탕도 곧 문을 닫는다. 느리게 흐르던 시간마저 멈춘다.

수요일에 동네 목욕탕

아차, 매주 수요일은 쉬는 날이다. ‘773-1013’, 간판에 적힌 번호를 눌러도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적으로 들려온다. 옆집 세탁소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선뜻 나서준다. 지나가던 한 할머니는 목욕탕 주인 만나러 왔느냐며 전화를 꺼내 든다. 오래된 동네 목욕탕이 맞다.

“어이, 목욕탕~! 거 있어?” 고요한 골목을 흔들어 깨우는 세탁소 아저씨의 외침에 ‘세계목욕탕’ 2층 창문이 드르륵 열린다. 유리문엔 수증기가 뽀얗게 서려 있다. 주인 홍경숙(67) 씨가 얼굴을 내민다. 설 이후에 오겠노라, 약속한 날 짜보다 이르게 찾아간 터였다. 얼굴엔 반가움보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래도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준다.

5. ‘관동 2가 8번지’, 아버지의 자리
6. 아직 온기가 남은 ‘제일사우나’ 여탕에서
7. ‘제일사우나’ 남탕의 냉기 가득한 열탕



여자들만의 ‘세계’

동구 송현동에 있는 세계목욕탕은 반백 년을 살았다. 1972년에 태어나 시아버지 고^췌 김상문 씨에 이어 김수남(68), 홍경숙 부부가 2대째 돌보고 있다. 고인의 뜻을 받아 대단한 사명감으로 가업을 물려받은 건 아니다. 21년 전, 중년의 부부는 1남 1녀 끝까지 건사하며 먹고살아야 했다. ‘남성 출입 금지.’ 입구에 쓰인 문구에 걸음을 되돌리는 사람이 반이다. 세계목욕탕은 여성 전용이다. 처음엔 남탕도 있었다. 가까이 화수부두에서 물고 온 비릿한 바다 냄새를 닦아내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한창 때엔 하루 손님 200명은 거뜼했다. 지금은 주말엔 50여 명, 평일에는 30명이 될까 말까다. 24시 사우나가 하나둘 생길 때마다 발길이 끊겼다. 근처에 낮은 집들이 헐리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동네 집이 낮아야 목욕탕 장사가 잘된다.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하늘 높이 솟아 올라만 간다. 그 옆 목욕탕엔 그늘이 진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지요?”라고 물으니, 주인장이 머뭇머뭇하다 끝내 답하지 못한다. “좋은 기억이라....” 잘 생각나지 않는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비가 올랐다. 하는 수 없이 올해부터 목욕 요금을 천 원을 올려 7,000원 받는다. 손님들이 서운해한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나이 든 단골들은 목욕탕이 그대로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저 죽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결같이 찾아주는 손님들이 식구나 다름없어요. 힘든 일은 위로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가족 같은 그들을 위해, 부부는 오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뜨끈한 목욕물을 욕탕 가득히 받는다.



1. ‘웨밀리사우나’ 김광식 이발사와 오랜 단골손님
2. 어떤 날에도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세계목욕탕’ 홍경숙 대표
3. ‘웨밀리사우나’ 단골 김승호 씨의 여유로운 한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계양구 임학동 도시 한복판, ‘웨밀리사우나’라고 큼지막이 쓴 간판이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온다. 높다란 굴뚝도, 붉은 온탕 표식도, 빙글빙글 삼색 등도 없다. 12년 전 이후남(59) 대표가 인수해 새로 개업할 당시, 이 일대엔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24시 찜질방과 사우나가 있었다. 그땐 규모나 시설 면에서 ‘핫’했지만 이젠 제법 세월이 묻어난다. 그래서 더 편안하다. 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지었다는 불한증막은 여전히 견재하다. 이 대표는 “한증막에서 몸을 데우면 뜨끈한 구들방에서 하룻밤 잔 것처럼 몸이 개운하다는 손님이 많다”며 그 맛에 산다고 웃는다.

동네 목욕탕에 비하면 신식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이 나이 들었다. 김광식(70) 이발사는 20여 년 한자리를 지켰다. 목욕하는 김에 이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하기 위해 그를 찾는 손님도 많다. ‘사각사각’ 가위질을 따라 머리칼 잘려 나가는 소리가 정겹다. 거울 위로 흰한 얼굴이 비친다. 10년 단골은 역시나 오늘도 머리가 마음에 든다. “딱 내 스타일, 익숙하고 편해요. 미용실은 절대 못 따라가죠.”

손님 이준행(75), 김옥분(66), 김복순(63) 씨도 이 집과 10년 인연이다. “우리 나이면 날 춥고 몸 아플 때, 한증막에서 땀 빼고 뜨거운 탕에 폭 몸 담그는 게 최고야.” 왕언니 말에 아우들이 “이 언니는 집 버리고 하룻밤 자고 갈 때도 많다.”라며 장난을 건다. 최진원(24), 이지원(23) 씨 커플은 찜질방 데이트가 처음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한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잖아요. 목욕업 종사자들에게엔 더 힘든 시간이지만 버티고 이겨내어 끝까지 남아주길 바랍니다.” 협회 김효숙(64) 사무국장과 나도 같은 바람이다.

사랑하던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 가슴에 더 선명하게 박히는 일이다. 문 닫아도 후회는 없지만 단골들이 걱정이라는 사장님. 52년생 일흔하나 나이에 다시 일할 목욕탕을 찾아야만 하는 세신사. 마지막 날까지 예약을 잡은 새벽반 단골 ‘뽕야’ 아주머니. 아직, 안녕을 고할 준비가 안 됐다.

4. ‘남성 출입 금지’, 시대의 흐름 속에 여탕만 남은 ‘세계목욕탕’.
5. 다 ‘때’는 있다. ‘웨밀리사우나’ 남탕
6. 첫 찜질방 데이트의 순간, 최진원·이지원 커플
7. 뜨끈뜨끈 ‘웨밀리사우나’ 불한증막





부평 문화의 거리(평리단길)의 저녁 풍경. 골목엔 대를 이어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 낭만과 추억,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젊은이들의 일상이 공존한다.

시장이자 마을, 부평사람들의 삶, 평리단길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는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젊은 날의 낭만과 추억이 별처럼 박혀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평리단길)’를 거닐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학창 시절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Since 1945. 광복이 되던 해 부평시장 골목에 문을 연 ‘남창문구사’는 70년 넘는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온 오래된 가게다. 창업주 임덕용 사장은 부평시장에 좌판을 깔고 화장품인 ‘딱분’을 팔다가, 장사가 잘 돼 점포를 매입해 문구점을 시작했다. 처음엔 노트를 팔다가 점차 품목을 늘려 문구류뿐 아니라 벽지, 장판 심지어 단추, 실까지 팔았다. 오늘, 이곳의 주인은 임 사장의 며느리 조광자(79) 사장이다. 그는 서운동에서 태어난 부평 토박이다. 1965년 가게를 이어받아 부평 최대의 문구백화점으로 키워냈다. “제 평생을 문구점에 바쳤어요. 단 한 명이 찾는 물건이라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져다 놓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또 공책 한 권이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배달을 해줬어요.” 부평에 학교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20여 개의 문구점이 성업했던 시절도 있었다. 명절이면 부평수출산업공단 직원들도 죄다 학용품을 사들고 고향에 내려가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이젠 모두 흘러간 옛이야기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꼬마가 어른이 돼서 오면 고맙고 반갑죠. 아이 손잡고 왔다가 본인이 어릴 때 쓰던 필기구를 찾기도 해요.” 골목길 풍경은 변했지만, 학창 시절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㉔ 남창문구사 부평구 부평대로32번길 13 | 032-503-8027

그의 노력과 땀이 뻗은 주판(위)
1965년 가게를 이어받아 남창문구사를 키워낸 조광자 사장(아래)



“골목 상권이 살아나 뿌듯해요”

평리단길의 유일한 철물점인 ‘강남철물’. 1998년도에 문을 열어 올해로 25년째 영업 중이다. 평범한 주부였던 박미애(60) 사장은 사촌 동생 내외가 운영하던 철물점을 6개월 간 교육받고 인수했다. 철물의 ‘철’자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그는 이제 부평시장상인회 평리단길의 부회장으로 골목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상인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했어요.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공룡 기업과도 겨뤄야 했고, 주말마다 벼룩 시장을 열어 사람들의 발길을 되돌리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어느새 25년이네요. 이곳이 활기를 되찾아 뿌듯합니다.”

㉔ 강남철물 부평구 부평대로38번길 17 | 032-503-8687



평리단길의 유일한 철물점, 강남철물



평리단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크롤’

“크루아상을 돌돌 말아 구운 ‘크롤’이 대표 메뉴”

크루아상을 돌돌 말아 바삭한 식감을 살린 ‘크롤’. 그 위에 생크림, 캐러멜, 과일을 커커이 얹은 앙증맞은 모습에 식탐이 한껏 달아오른다. ‘더즌매터’는 평리단길의 수많은 디저트 카페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핫 플레이스다. 나영진(28) 대표가 직접 개발한 크롤이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곳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 더즌매터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2월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요. 많은 분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㉔ 더즌매터 부평구 부평대로38번길 281 | 070-8860-4926



스케이트보더들의 아지트, 라이엇 스케이트 숍의 김경호 대표

“인천에서 올림픽 국가대표가 나오길 바랍니다”

‘라이엇 스케이트 숍’^{RIOT SKATE SHOP}은 전국에 몇 안 되는 스케이트보드 전문 매장이다. 부평역 광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며 학창 시절을 보낸 김경호(38) 대표는 9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국내에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스케이트보드 행사 기획자로서도 중형무진하며 국내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스케이트보드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국가대표가 나올 때까지 곳곳을 누빌 생각입니다.” 김 대표는 “인천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㉔ 라이엇 스케이트 숍 부평구 부평대로38번길 18-1 | 070-7368-4437

“유기동물 제로를 꿈꾸는 ‘티카페620’”

따뜻한 향과 인테리어로 심신을 스르르 녹여주는 ‘티카페620’. 세라믹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길소영(30) 작가가 운영하는 카페다. 도자기와 차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전통 디저트가 함께 있는 곳이다. 화과자, 양갱, 약과 등 ‘할매니얼’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통 디저트 덕에 젊은 고객의 발길이 잦다. 공간 이름의 ‘620’은 ‘유기동물 제로’란 뜻을 담고 있다.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며, 작가의 반려견 ‘나나’도 상주하고 있다.

㉔ 티카페620 부평구 부평문화로71번길 28 1층 | 0507-1430-0620



티카페620의 마스크트, 나나. 손님에게도 곁을 내어준다.

“전자음악의 세계는 무궁무진”

창작 공간 ‘베이지’는 베이킹하는 아내와 전자음악을 하는 남편의 아지트이다. 아내가 운영하는 베이킹 숍 ‘베이지 케이크’ 위층에서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공연·전시 기획자 겸 디제이로 활동하는 김태연(38) 대표가 공연, 전시 등을 펼친다.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자음악 디자인과 디제잉 수업도 진행한다. 그의 꿈은 인천 출신 전자음악가들의 모임을 결성하는 것. “새로운 음악 시장이 열렸어요. 미술과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음악이 각광받고 있어요. 창작자, 시민, 관이 협력해 문화의 씨앗을 심고 길러내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평리단길에서 이 문화를 꽃피우는 게 제 욕심입니다.”

㉔ 베이지 케이크 부평구 부평대로36번길 30-1 | 0507-1376-7898



평리단길에 전자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분연히 키워내고 있는 김태연 대표



커텐 홈패션 거리의 터줏대감, 우성홈패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요”

‘우성홈패션’은 ‘커텐 홈패션 거리’의 터줏대감이다. 박순단(68) 사장은 35년 전 아이들 키우며 용돈도 벌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도록 홈패션을 배워 가게를 열었다.

“1990년대에 이미 숨씨 좋은 사장님들이 자리를 잡아 커튼 골목으로 유명했어요. 주문이 밀려들어 섯별이 뜰 때까지 바느질을 할 정도였어요.” 그 시절에 비하면 찾는 이가 줄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를 찾는 오랜 고객처럼 그 역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한다.

☎ 우성홈패션 부평구 부평대로36번길 14-1 | 032-528-4015

“한 땀 한 땀 행복을 염원하는 한복”

장인의 손길 따라 비단 옷감의 직선과 곡선이 이어진다. 정성을 들인 꼭 그만큼 맵시가 드러나는 한복. 저고리 앞자락의 단아한 깃과 섹, 소매 아랫부분이 넓고 둥근 곡배래에서 그의 정교한 솜씨가 묻어난다.

장혜원(68) 선생은 10대 시절부터 옷을 지었다. 양장점에서 일하다 그의 나이 서른여덟에 전통 의복을 시작했다. 하루 대부분을 실, 바늘과 함께 갇고 꿰매며 보낸 세월이 벌써 50여 년이다. “한복은 결혼이나 잔치 등 경사로운 날에 입잖아요. 입는 이의 행복을 염원하며 한 땀 한 땀 진심을 새겨 넣었어요.”

그는 요즘 전통을 지키며 실용성을 높인 한복 디자인을 연구 중이다. 인증샷을 남기려고 한복을 대여하는 손님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복을 입으면 특별한 기분이 들지요. 16세기엔 여성들의 저고리 길이가 길고 품도 넉넉했어요. 이를 재현하면 활동하기에도 편한 디자인이 가능해요.”

☎ 장혜원한복연구소 부평구 부평대로36번길 12-1 | 032-508-0625



50여년 동안 의복을 지은 장혜원 사장

사친 향켓, 인청의 기억

평리단길의 역사는 1950년대 미군기지 애스컴 시티(ASCOM City)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유통되던 양키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너도나도 구하고 싶어 한 떡분(화장품), 커피, 군복 등 다양한 미제 물건이 좌판에 내어졌고, 1970년대 부평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선 후에는 노동자들의 생필품이 팔려나갔다. 이후 의류 상점과 함께 음식점, 카페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젊음의 거리’로 이름을 알렸다. 오늘날 시장이자 마을, 부평 사람들의 삶인 골목엔 대를 이어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 낭만과 추억,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젊은이들의 일상이 공존한다.

1

문구점 ‘남창문구사’와 중국음식점 ‘복화루’는 부평의 오래된 가게로 손꼽힌다. 1945년부터 가업을 이어 온 두 곳은 지금 평리단길에서 사이좋게 마주보고 백 년의 역사를 쓰고 있다. 남창문구사는 1974년 현재 위치에 자리잡았고, 복화루는 1980년에 건물을 올렸다. 사진은 1대 이복충 사장과 가족들이다.

2

‘평리단길’은 부평시장 상인들의 희망으로 탄생했다. 1978년 부평지하상가 시대가 열리고, 대형 백화점(1978)과 대형마트(1995)까지 들어서며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상인들은 골목을 살리기 위해 1998년 ‘부평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다. 무던히 애쓴 지 20년,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모여들며 활기를 되찾았다.

3

1990년대 커튼과 홈패션 거리로 명성을 날렸다. 어떤 가게는 문을 닫기도 했고, 어떤 가게는 분연히 자리를 지켜냈다. 그 수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알록달록한 원단과 실타래로 가득한 가게들이 눈에 띈다. 사진은 35년 전통의 ‘우성홈패션’의 외관.



사진 제공 복화루 이장제 3대 사장



사진 제공 부평구청



3

새우젓, 바지락 그리고 봄동

인천의 맛

'영종도' 새우젓 봄동 파스타

인천 오감 레시피



영종도 '솔마레' 앞 갯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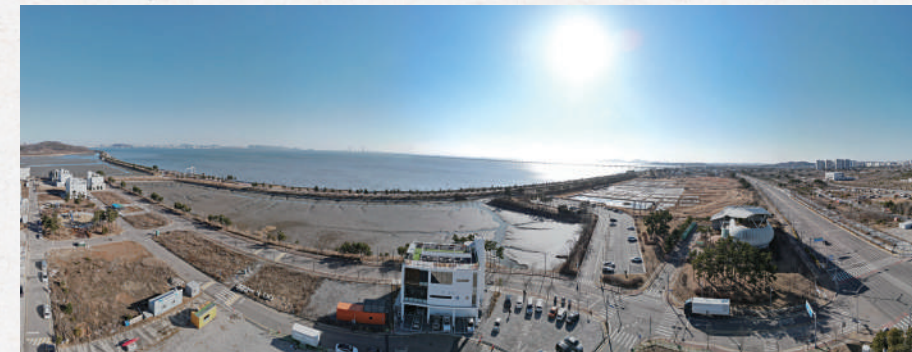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오롯이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완성하는 인천 오감 만족 레시피. 이번 요리는 '새우젓 봄동 파스타'다. 새우젓과 바지락으로 서쪽 바다의 숨결을 불어넣고, 봄동을 곁들여 땅의 기운과 두근두근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다.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바닷가에 있는 카페 '솔마레'에서 함께했다. 뷰도 음식도 맛집으로 떠오른 즐겨찾기 명소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요리 솔마레 | 스타일링 강지인·김예진

하늘과 바다 사이의 섬, 영종도.

바다의 숨결과 땅의 기운을 불어넣은 맛으로 봄을 한 발짝 먼저 만난다.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앞, 카페 '솔마레'. 뷰도 음식도 맛집이다.

하늘과 바다 사이, 미리 만난 봄

하늘과 바다 사이의 섬, 영종도로 간다. 그 섬에서 또 다른 하늘과 바다를 만난다. 베이커리 카페 '솔마레(Sole Mare)'. 이탈리아어로 'sole(솔)'은 태양이고 'mare(마레)'는 바다이다. 소나무와 식물을 이르는 우리 말 '솔'에서도 착안했다. 카페가 등지를 뜬 씨사이드파크 바닷가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룬다.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 바람 끝에 바다 냄새, 숲 향기가 진하게 묻어난다. 그곳에서 미리 봄을 만난다. 바다를 한껏 품은 오감을 사로잡는 맛으로.

솔마레 셰프가 제안하는 메뉴는 '새우젓 봄동 파스타'다. 인천의 맛을 담은 주재료는 새우젓과 바지락. 갯벌을 품은 서쪽 바다의 숨결을 가득 불어넣었다. 여기에 파릇파릇한 봄동을 곁들여 땅의 기운을 보완하고, 두근두근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다.

바지락은 서해안 일대, 인천에서는 영흥도에 주로 서식한다. 백합과에 속하는 바지락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바지락은 크기는 작아도 살이 꽉 차 있고 단맛이 나며 부드러웠다. 제철은 2월에서 4월. 봄에 나는 바지락은 살이 탱글탱글, 바다의 풍미가 짙게 들어차 있다.

새우젓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미각을 돋운다. 젓갈로 담그는 젓새우는 강화 바다에서 주로 난다. 강화도 연간 어획량의 30%에 이른다. 뱃사람들은 복숭아꽃이 피면 바다에서 봄 젓새우를 잡고, 아카시아꽃이 필 무렵 오젓과 육젓에 쓸 새우를 잡는다.

☎ 솔마레 중구 영종대로 566번길 15 ☎ 0507-1341-0537

바다 향 물씬 나는 한 그릇

한식 재료로 사랑받는 바지락과 새우젓이 서양식 파스타와 어울릴까? 물론이다. 바다 향이 물씬~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바지락과 새우젓은 스파게티 면과 궁합이 잘 맞는다. 바지락의 탱탱한 육질이 매끈한 올리브유 사이로 씹히는 맛이 일품. 이탈리아식 봉골레 파스타보다 친근한 재료로 맛을 내니 특히 어른들 입맛에 더할 나위 없다. 여기에 향긋한 봄동을 곁들여 입안 가득 싱그러움을 더한다. 씹을 때마다 '사각사각' 봄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솔마레', 그 섬에 더 머물다

이왕 섬에 왔으니 잠시 쉬었다 가자. 씨사이드파크 바닷가에 최근 바다를 전망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들 생겨났다.

솔마레의 나순호(62) 대표는 반년 전 바다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카페를 열었다. 인천 토박이로 삶 대부분을 이 안에서 살아온 그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고향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육지와 가까운 섬 영종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었다. "우리 가게를 찾는 분들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커피 향기가 오감을 유혹한다. 창 너머로 보이는 인천 대교의 실루엣이 우아하다. 향기 어린 이 시간을, 다가오는 봄을 가만히 음미한다.

솔마레는 쾌적한 3층 건물에 루프톱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베이커리와 음료는 물론 화덕피자와 라자나, 파스타 등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맛도 일품, 어느 메뉴를 골라도 후회는 없다.



바다 향이 물씬~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맛.
두근두근, 봄의 싱그러움을 버무린 한 그릇



재료 (1~2인분 기준) 새우젓 10g, 스파게티 면 150g, 알마늘 40g, 봄동 100g, 바지락 200g, 면수 200ml, 페페론치노 3~4개, 올리브유, 후추 약간

'영종도 새우젓 봄동 파스타' 레시피

유명 셰프가 차린 음식도,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아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는 맛.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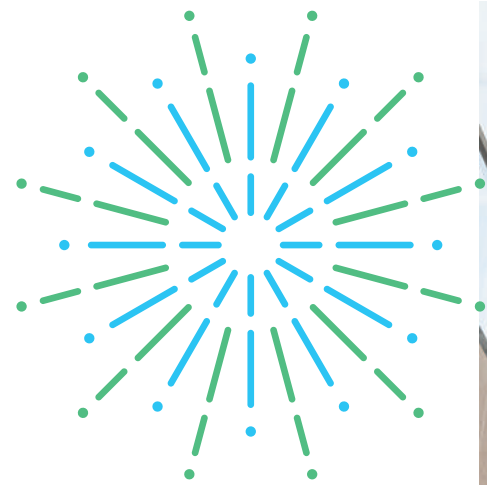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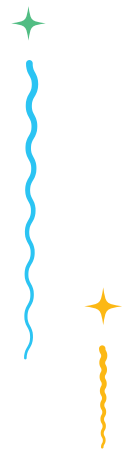
- ①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반으로 얇게 썬다.
- ② 냄비에 물 2L, 소금 20g을 넣고 끓인다.
- ③ 물이 끓으면 스파게티 면을 넣고 중간중간 저어가며 8분 정도 삶은 뒤 건져내고, 면이 뭉치지 않게 올리브유에 버무려 둔다.
- ④ 봄동은 씻은 후 2cm 폭으로 자른다.
- ⑤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뒤 중불에 올려 마늘을 볶다가 페페론치노를 부숴 넣고 볶는다. 페페론치노를 같이 볶아 매운맛이 기름에 스며들게 한다.
- ⑥ 마늘의 색이 노릇해지면 새우젓, 봄동을 넣고 볶는다.
- ⑦ 봄동을 넣고 볶다가 숨이 죽으면 바지락을 넣고 살짝 볶는다.
- ⑧ 바지락이 한두 개 입을 벌리면 면수를 넣고 간이 배도록 끓이다가 면을 넣고 볶는다.
- ⑨ 중불로 조리하며 면에 소스가 충분히 스며들면 후추를 뿌려 낸다.

'시민 셰프'를 위한 요리 Tip

여기서 잠깐. '시민 셰프'를 위한 요리 팁을 공개한다. 새우젓을 요리하는 초반에는 마늘과 함께 볶아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북돋운다. 또 바지락은 충분히 해감해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찬물에 바지락을 बारबार 씻은 뒤 깨끗한 물에 담그고 소금을 바닷물 정도의 농도로 넣어준다. 이후 주변이 어두워야 해감이 잘되므로, 검정 봉투로 덮어 실온에 1시간 정도 둔다. 해감 후에는 깨끗한 물에 씻어 요리한다.



취미가 밥 먹여주는 ‘덕후^{御宅}’ 전성시대



생활문화센터 '507문화벙커'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방지희 씨



‘덕후’들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한때는 취미에만 몰두하는 괴짜를 가리켰지만, 요즘은 한 분야에 남다른 실력을 갖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20대 청년 10명 중 8명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덕업일치’의 행복을 꿈꾼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은퇴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투자하는 ‘중년 덕후’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우호적이다. 이번 호에는 좋아하는 취미와 지식에 몰두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덕후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액티브 시니어의 반격, ‘취미에 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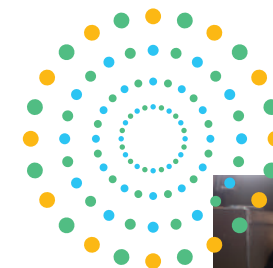
드럼 연습이 가능한 방음부스

507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인도 한가운데 뻐끔히 드러난 유리문을 열고 지하도로 내려서니 사방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통탕통탕 쳇그랑!’ 방음 부스에서는 드럼이 울리고, 부드러운 손풍금 소리와 중창단의 화음이 긴 복도를 가득 채운다.

그 소리의 세상에서 걸어 나온 방지희(67) 씨는 ‘알프스 소녀’ 같은 원피스를 입고 청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 전쯤, 507 문화벙커에 와서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20대 때 요일에 빠져서 김홍철 선생님이 공연하는 카페에서 살았어요.” 1968년 데뷔한 김홍철은 ‘한국 최초의 요들러’이자 ‘한국 요들의 대부’다. “함께했던 친구들을 불러모아 ‘에델바이스 요들 클럽’을 결성했어요. 젊어서는 가정에 얽매어 못 했다면 이젠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잖아요.”

그 후 문지방이 닳도록 507 문화벙커를 들락거렸다. ‘생활예술 동아리 한마당’, ‘씨페스타’, ‘온스테이지 동아리 네트워크’ 등에서 창작 무대에 서고 ‘아코디언 지도자 자격증’을 딸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다. “아이들에게 요들송도 알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점점 많아져요. 꿈이 생기니 매일매일이 설레요.”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

2년 전 부평 문화의 거리(평리단길)에 에스프레소 바를 차렸다는 조광환(70) 씨는 은퇴 후 취미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다. LP판을 모으는 취미도 있어 음악 감상실을 차리고 싶었지만, 그가 내린 커피를 맛본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에스트로 커피 랩’을 열었다. “노년은 청춘에 못지않은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평생 취미를 찾아보세요.”



퇴직 후 평리단길에 에스프레소 바를 차린 조광환 씨



온라인이 바꾼
‘취미 생활 지형도’

인천 청년 윤서연(27) 씨는 자신만의 다이어리를 꾸미는(이하 ‘다꾸’) 것이 취미인 ‘다꾸족’이다. 색색의 형광펜은 기본, 커팅이 안 된 스티커인 ‘인쇄소 스티커’, 메모지 묶음인 ‘떡메모지’, 포토 프린터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일상을 부지런히 기록해 왔다.

2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life_with_records)을 통해 다꾸족과 소통하며 그의 삶은 기적처럼 달라졌다.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그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팬층이 생겼고, 한 업체의 요청으로 다이어리 속지를 디자인해 판매할 기회가 생겼다. 내친김에 그는 문구 브랜드 계정 ‘오브레코드’를 열었다. 모닝 메모지, 독서 스티커 등 그의 ‘부지런한 취미’가 ‘기록을 돕는 상품’이 됐다. “가벼운 기록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다이어리 쓰기와 관련된 영상도 올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이디어스’에서 수채화를 그려 판매하는 김혜진 씨



온라인 취미 생활 플랫폼,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등도 성장세다. 현재 아이디어스와 텀블벅에서 활동 중인 작가와 창작자는 6만 명에 달한다.

김혜진(32) 씨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는 틈틈이 아이디어스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어릴 때부터 손에서 붓을 놓은 적이 없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하곤 했어요. 소소한 취미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된다니 뿌듯해요. 고객을 위한 그림을 그리며 작품에 대한 태도도 더 진지해졌어요.”



마라톤, 플로깅 등을 통해 러닝의 즐거움을 알리는 전동석(왼쪽) 씨

좋아하는 일=직업,
덕업일치

전동석(36) 러닝 인플루언서(@jeon_ds)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것의 가치를 찾았다면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감각은 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연구하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야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1호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47)는 어려서부터 레고 마니아였다. 성인이 된 후에도 월급의 반을 쏟아부을 만큼 레고에 진심이었다. “블로그에 제 작업물을 기록하곤 했어요. 그걸 본 전시 관계자한테 출판 제의 연락을 받았죠. ‘스팀펍크아트전’이라는 전시를 준비 중인데, 제 작품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그는 첫 전시 후 과감히 회사를 그만뒀다. 올해로 브릭 아티스트 10년 차. 전국을 중형무전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브릭 아트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엔 시청 앞 인천애뜰에 폐블록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전시 중이다. 무려 600kg의 폐블록으로 시민들과 합작한 ‘교감’이라는 작품이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게 꿈”이라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고 네모난 세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전 중이다. 땀뻑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건 덕후들, 성공한 덕후의 뒤에는 치열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



지난해 가을 인천애뜰에 작품을 설치 중인 진케이



이
방
호

혼을 갈아 깎아낸 나무 부처님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그래퍼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부처님의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단단한 통나무가 부처님으로 피어나기까지 수십, 수백 개의 조각칼이 스쳐 지나갔다. 웃는 듯, 혹은 사유에 잠긴 듯한 눈매. 부드럽게 다문 입과 커다란 귀. 장인은 그렇게 지난 수십 년간 혼을 갈아 부처님을 깎고 또 깎았다.

마무리 작업은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다. 사포를 쓰면 수월하지만 이방호(66) 목조각장(인천시무형문화재 제22호)은 끝까지 조각칼만 고집한다.

“조각칼로 시작해 조각칼로 끝내는 것, 그게 우리 전통 방식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다남로 143번길 33 ‘반딧불 목공예 카페’. 계양산 산기슭 다남동은 그의 작업장이자 그가 태어난 고향 땅이다. “저도 선친도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았어요.”

처음엔 작업실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공예 전시실과 카페를 열게 됐다. 수백 개의 조각칼과 톱밥이 두껍게 쌓인 그의 작업장은 카페 뒤에 자리한다. 이 고요하고 어두컴컴한 작업실에서 그는 망치로 끝을 내리치고 자귀와 조각칼로 나무를 다듬는다.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를 만나기 위해. 이 목조각장이 조각칼을 처음 잡은 시기는 10대 중반이다.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방황하다 학업을 위해 서울에서 공방을 하시는 고모 집으로 올라갔지요. 그때 사촌 형이 목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기웃거리며 관심을 보이는 동생에게 사촌 형은 조각칼을 쥐여 주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사촌 형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박찬수 선생을 소개해 준다. 동생의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범상치 않게 본 것이다.

새로운 스승 아래서 ‘서각·판 조각·입체 조각’의 체계적 코스를 거친 이 목조각장은 독립하면서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조각한 불상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일

취월장하던 그는 1990년대 우리나라 불상 조각의 대가 전기만(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선생을 찾아간다.

“인정은 받았지만 더 배우고 싶었어요. 조선 시대 목조각을 계승한 스승님은 당시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서 불상을 조각하고 계셨는데 무작정 찾아가 큰절부터 드리고 본격적인 불상 조각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금산 산속에 계시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찾아뵙고 있어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불상과 우리나라 불상은 표정 자체가 달랐다. 일본 불상은 예쁘장한 반면, 우리 불상은 인자한 표정을 빚어내야 했다. 그걸 바꾸는 데만 15년 넘게 걸렸다.

좋은 불상이 탄생하려면 나이트가 촘촘한 나무를 골라 2, 3년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나무의 갈라짐이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부산 백련사 백의관음보살상, 제천 정방사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해 그의 영혼에서 탄생한 불상만 수백 점에 이른다. 2009년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지만 지금도 눈만 뜨면 작업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겨울 아침, 자신이 형상화하고 있는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이방호 목조각장이 작업실 앞 '반딧불 카페' 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잔 갯벌을 날아오르는 마도요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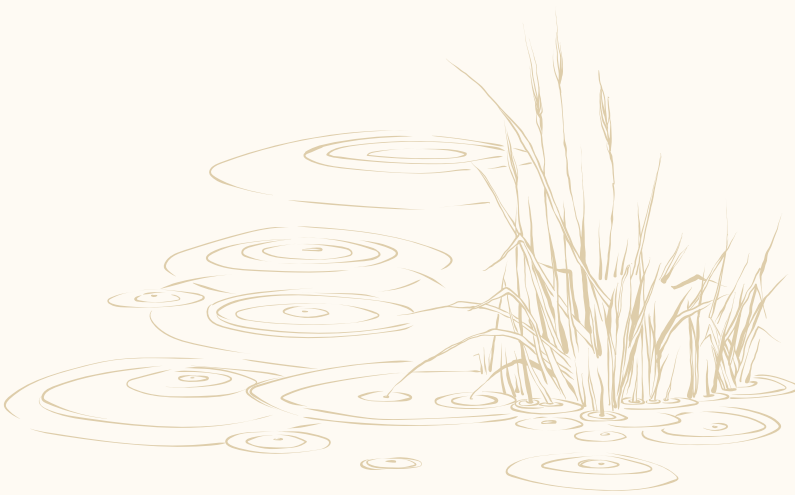
생명의 보고, 인천 갯벌에 등지를 틀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엔 모든 동식물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공존한다. 새가 없으면 해충이, 최상위 포식자가 없으면 초식동물이 크게 늘어나 먹이사슬이 붕괴된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가자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도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천시는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기를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겨 2045년으로 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다. 광활한 갯벌과 깨끗한 바다, 무수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땅 인천. <굿모닝인천>이 새해 특별 기획으로 세계를 지키는 인천의 생태계를 탐험한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홍승훈 포토그래퍼

소래생태공원에 날아든 겨울철새들

겨울 햇살이 드리워진 소래생태공원 갯골 사이로 카키빛 물이 흐른다. 잔물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갯골을 흐르는 밀물의 폭은 넓어진다. 장수천과 소래 바닷물이 만나는 그 물 위로 오리들이 떠 있다. 갯벌 위에서 쉬는 녀석들도 눈에 들어온다.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생김새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진 오리들이 갯골 여기저기서 한가로운 겨울 오후를 보내는 중이다. 소래생태공원을 휘휘 돌아 나온 물은 한화에코메트로 아파트 앞을 지나 고잔, 송도, 아암도, 남동의 하천, 바다와 만난다. 지난 1월 19일 돌아본 갯벌 일대에선 알락꼬리마도요, 흑부리오리, 기러기 같은 겨울철새가 떼를 지어 날아오르거나 쉬고 있었다.



하천과 바닷물의 만남, 남동유수지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 사이 ‘남동유수지’는 승기천과 송도 갯벌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하천과 바닷물의 만남은 생태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염분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저어새의 새끼는 민물과 바닷물이 함께 있는 곳에서만 서식이 가능하다. 남동유수지에 해마다 저어새가 등지를 트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남동유수지에 저어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엔 매년 120여 종의 물새와 숲새들이 찾아온다. 흰꼬리수리, 매,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부터 청다리도요처럼 전 세계 개체수의 1%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종 개체들이 한동안 머물다 떠나간다. 숲으로 들어가면 노랑턱멧새, 딱새,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서구 공촌천을 찾은 겨울철새들



교동도를 찾은 큰기러기들이 겨울 논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남동유수지에서 고방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상반신을 물 속에 담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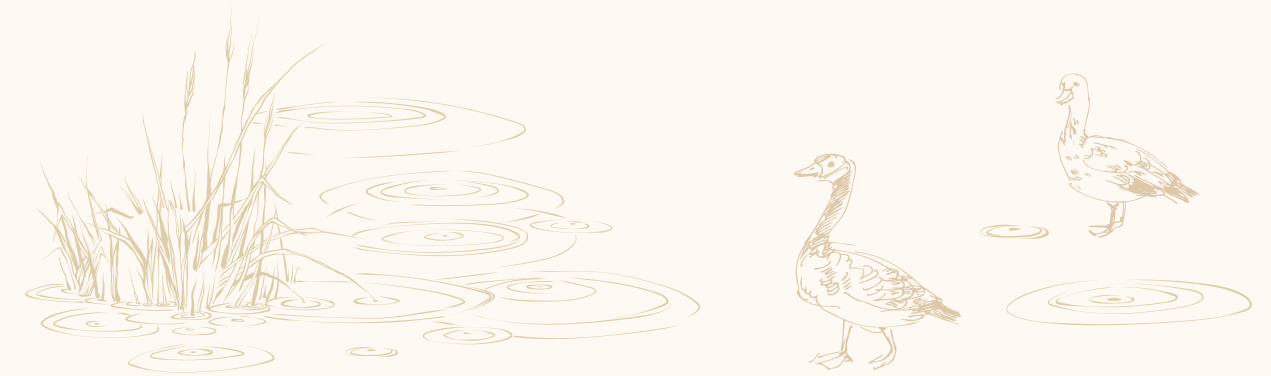
인천의 섬에서 만나는 겨울철새만 350여 종

겨울이면 인천의 갯벌엔 수백여 종의 철새가 날아온다. 계절에 따라 적게는 수백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 송도, 영종도, 강화도 등 인천의 갯벌과 소청도, 덕적도, 장봉도 같은 인천의 섬에서 만나는 새들만 350여 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550여 종의 새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대 철새 서식지가 인천임을 말해주는 수치다.

지금도 강화 동검도에선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쇠기러기, 큰기러기, 독수리, 청둥오리, 쇠오리의 군무를 볼 수 있다. 고고한 자태로

먹이를 찾는 큰고니, 큰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도 인천에서 많이 관찰된다. 맹금류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천에서 만나는 멸종위기종 맹금류는 물수리, 벌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매, 수리부엉이 등이다. 이처럼 희귀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얘기다.

김미은(48) 저어새생태학습관 사무국장은 “새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먹을 것도 많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인천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조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정화작용까지 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학익유수지에서 고방오리가 쉬고 있다.



고잔 갯벌에서 만난 민물도요 떼와 마도요

환경 칼럼

인천 갯벌,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

글 노형래 환경 칼럼니스트

“한국 갯벌은 독일 갯벌보다 저서생물, 갯벌 생물, 염생식물, 사구식물, 철새 개체수 등 종다양성이 풍부한 세계 자연의 보고입니다.”

“한국 갯벌, 그중에서도 인천 강화도 갯벌은 후대에 꼭 남겨줘야 할 세계자연유산입니다.”

15년 전 독일 쉐레스비히-홀스타인 갯벌 국립공원에서 만난 세계적인 갯벌 전문가 ‘헬무트 그림’ 박사는 인천 갯벌, 특히 강화 갯벌에 관심이 많았고,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 갯벌 세계 자연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당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바덴해 3국 갯벌 보호 체계를 취재했다.

인천의 갯벌은 전 세계 6,000여 마리의 저어새를 낳고 키우고 있다. 저어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두루미, 황새,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청둥오리, 흰죽지, 고방오리, 흰꼬리수리 등 수많은 희귀 조류의 보금자리다.

2019년 서천 갯벌(충남 서천), 고창 갯벌(전북 고창), 신안 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네 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강화도, 옹진군, 연수구, 중구 등 인천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에서 제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한국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하면서 강화도와 옹진군 등 인천 갯벌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문화재청도 2025년 열릴 예정인 제48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까지 등재 심사에서 인천 갯벌 등을 2단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 지역 갯벌 면적은 강화군 256.1km², 옹진군 298.2km², 중구 174km² 등 총 728.3km²로 전국 갯벌 면적(2,482km²)의 29.3%를 차지한다. 인천 갯벌에는 여의도의 52.7배인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435.069km²)’가 있다.

2003년 인천 최초로 지정된 옹진군 장봉도습지보호구역(약 68.4km²)과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전지역(약 55.7km²)도 있다. 송도 갯벌 일부는 해양수산부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로 등재돼 있다. 문화재청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강화도와 옹진군 갯벌을 등록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갯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많은 생명과 공존하기 위해 흔쾌히 내놓았지만 정작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연구 기관 설립,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상품 개발 등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인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꼽히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이 갯벌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묘안일 것이다.



그 많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서적은 어디로 갔을까

문자와 인쇄술은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뛰바꾼 최고의 발명품이다. 인터넷, 메타버스의 탄생도 제1의 정보혁명인 '인쇄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5월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정족사고, 외규장각, 한글 점자를 창안한 도시로 201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했고,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사고'와 왕실 서적을 품었던 '외규장각'을 찾아갔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정족사고



가장 방대한 왕실 서적을 보관했던 장사각(사진좌)과 선원보각 전경

<조선왕조실록> 가장 많이 보관하던 사고

- 정족사고

“첼커덕! 뻘이-익”

‘정족사고’의 육중한 자물쇠를 풀고 나무 문을 열자 두 채의 건물이 나타난다. 건물들은 옆으로 길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왼쪽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인 ‘장사각’이고, 오른쪽은 왕실의 족보를 보관했던 ‘선원보각’이다.

장사각의 문을 여니 두 개의 보관함이 눈에 들어온다. ‘법화경판’ 104점을 보관하고 있는 보물함이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조선왕조실록>은 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선원보각은 아예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족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조선은 건국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편찬, 춘추관·충주·성주·전주 등 네 곳에 나눠 보관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유일하게 전주사고본만 남는다. 조선은 이러한 연유로 1603년(선조36)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실록을 다시 제작해 춘추관, 강화 마니산, 태

백산, 묘향산, 오대산 등 다섯 곳에 사고를 세워 보관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1659년 강화 유수로 부임한 유심(선조 외손자, 1608~1667)이 1660년 “강화가 외적의 침입을 피하기 적합한 곳”이라며 왕실 세보와 실록 등을 전등사 경내로 옮길 것을 조정에 건의한다. 이러한 연유로 1678년(숙종4) 전주사고의 책들은 정족사고로 옮겨졌으며, 이때 장사각과 선원보각을 지어 <선원세보>를 비롯한 왕실 관계 책들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1707년엔 황후 강화 유수가 장사각을 고쳐 짓고 별관을 새로 만든다. 전등사는 이때 정족사고를 관리하는 사찰로 공식 지정되며 1734년(영조10) 일종의 정부 지원금인 선두포답의 곡식을 하사받기도 한다.

정족사고가 보관하던 책은 4,000여 책으로 전국 4대 사고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이었다. 그중의 백미는 국보 151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으로 이는 조선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는 470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왕실 서적이다.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은 1910년 강제 한일병합조약과 함께 서울 ‘규장각’으로 옮겨진 이래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장사각 안에는 법화경 104점과 조각품만 전시되어 있다.



선원보각 내부는 빈 창고처럼 보인다.

의궤 등 1,500여 왕실 서적 보관한 보장지처

- 외규장각

“책이 생각보다 크네. 저게 조선 시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응, 진짜는 아니고 모조품이야.”

햇살이 밝은 겨울날, 외규장각 앞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셀카’를 찍으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규장각 안으로 들어가니 의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문과 왕실 행차도 정도만 눈에 띈다. 한편 유리 진열대 안에 책이 있어 들여다보는데, ‘의궤복제품’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외규장각은 ‘외곽에 있는 규장각’이란 뜻으로 ‘규장외곽’이라고도 한다. 1781년(정조5) 규장각 제학이던 서호수를 강화 유수로 임명한 정조 임금은 강화 궁궐의 행궁 동쪽에 외규장각을 짓는다. 정조는 <도서집성> 5,000여 권을 베이징에서 구입해 홍문관 소장본과 강화부 행궁에 보관한 명나라의 책들을 정리하며, 희귀하고 비밀스러운 수천 종의 책을 보관하기 위해 외규장각을 건축했다. 1781년 9월 24일 강화 유수가

된 김익은 1782년 2월 외규장각이 완성됐음을 보고했고, 정조는 “외규장각의 공역이 끝났으니 봉안할 금보, 옥보, 은인, 교명, 죽책, 옥책과 명나라에서 흡사한 서적, 열조에서 봉안했던 서적, 보관돼 전해 오던 서적과 사고에서 이봉한 어제, 어필 등의 서적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고 내각, 외각 및 서고에 나누어 보관토록 하라”라고 어명을 내린다.

외규장각은 정간 6칸, 전영 3칸, 동벽문 2칸, 협문 2칸, 정문 2칸, 위장직소 5칸으로 지어졌으며 정조는 1782년 4월 2일부터 외규장각에 서적을 봉안하기 시작해 조선 후기까지 의궤, 어제, 어필, 간본 등을 봉안했다. 당시 강화 내고에 보관하던 책은 경부 7종 45권, 사부 14종 303권, 자부 41종 679권, 집부 47종 516권 등 모두 109종 1,543권에 달했다.

외규장각에 보관하던 서적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한 때는 1866년(고종3)이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며 프랑스 신부 11명을 처형하자 프랑스 함대는 이를 빌미로 강화도를 무력 침공한다. 프랑스 군은 이때 양민을 학살하고 외규장각을 불태웠는데, 6,000권 이상의 책이 사라지고 340여 책의 왕실 문서와 은괴 수천 냥도 약탈당했다.



계묘년 새해, 외규장각 앞에서 한 가족이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정족사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구 목소리

프랑스는 앞서 삼랑성 정족진을 배수진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선군에게 대패하자 퇴각하면서 의궤와 자료 359점을 약탈한 뒤 외규장각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의궤는 ‘의식의 궤범’이란 뜻으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란 의미를 지닌다. 왕실과 국가가 치른 의식과 행사를 준비, 실행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2010년 프랑스가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의궤 297권은 재불 학자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고국의 품에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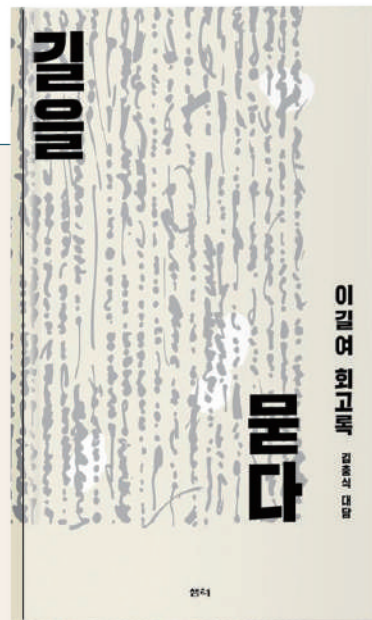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현재 강화 궁궐 터에 재현해 놓은 외규장각 안엔 의궤 복제품 몇 권만 있을 뿐 단 한 권의 진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지역에서 ‘인천 문화재 반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외규장각 내부



고려궁지의 수백 년 된 나무 오른쪽으로 외규장각이 눈에 들어온다.



존경받는 의료인, 교육자로 산 시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

<길을 묻다> | 펴낸 곳 샘터
512쪽, 2만7,000원

산부인과는커녕 의료복지 분야 전반이 황무지이던 시절, 인천에 산부인과를 개원하며 많은 생명을 받아내고 살려낸 여의사. 가천박물관을 아우르는 가천문화재단을 설립, 인천을 문예 부흥의 발원지로 만든 주인공.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을 수식하는 말엔 늘 '인천', '최초'란 단어가 따라붙는다. '사랑과 헌신'도 그를 수식하는 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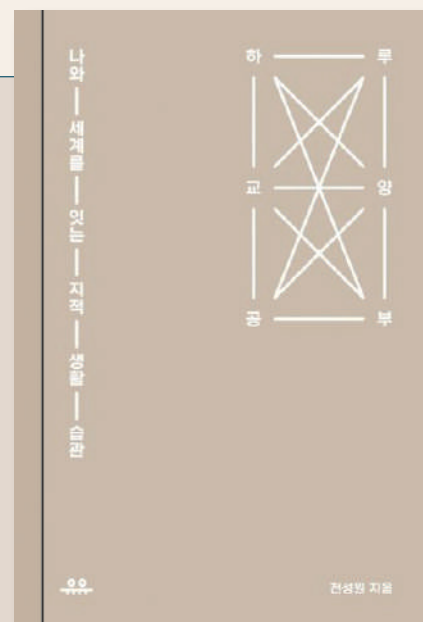
새 책 <길을 묻다>는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걸어온 길을 화롯불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서술한 책이다. 김충식 가천대 교수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여성 의사이자 존경받는 교육자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온 이길여 총장의 삶을 2년에 걸쳐 대담한 뒤 책으로 펴냈다.

한 세기의 교양을 다 담았네!

<하루 교양 공부> | 펴낸 곳 유유
1,112쪽, 3만8,000원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필요하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 가운데, 지금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인물과 사건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25년 넘게 새얼문화재단에서 <황해문화>를 만들며 세상의 온갖 잡학을 엮고 공부한 전성원 편집장은 <하루 교양 공부>에서 사건과 인물을 가려 뽑고 그 일과 인물이 왜 지금도 우리 삶과 밀접한지를 설명한다. 국가와 대륙은 물론 철학과 종교, 예술과 학문을 넘나들며 함께 알고 기억할 만한 문화, 인물, 역사, 지식 이야기를 하루에 한 편씩 들려준다.



마음건강, 점검에서 회복까지

IMAGE NEWS

01

인천시민을 위한 마음건강 서비스 시작

-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각종 재난 후유증 치료
- # 우울, 불안, 무기력 해소
- # 심리 방역 강화 위한 맞춤형 서비스

02

동네방네 마음안심버스

- #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 지원 서비스
- # 위기 상황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 언제 어디든 도움의 손길 제공

03

따뜻한 인천의 '마음을 담은 홈페이지'

- # 무료 마음건강 검사부터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까지
- # 이벤트도 수시 진행
- # <https://maro.imhc.or.kr/user>

04

마음건강 키오스크에서 쉽고 간편하게 체크업

- # 지금 바로 마음건강 검진
- #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24시간, 연중무휴)

시민 의견 반영한 전동차 디자인 확정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전동차 디자인이 최종 확정됐다. 안정감, 속도감, 세련미 등을 반영했으며, 광폭 의자 적용 및 오픈 형태의 객실 간 통로, 객실 내 휴대전화 충전 등 편의성을 높였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2024년 개통을,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032-451-2828

토지 보상금 1,043억 원 되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행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043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보상금 대상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인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로 면적은 20만 1,475㎡에 달한다. 향후 토지 보상금은 관광자원화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 IFEZ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62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매월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 섬발전지원과 032-440-4992

글로벌 톱 3 '게임' 전공, 송도에 개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오는 2023 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게임 전공을 개설한다. 게임 전공인 엔터테인먼트 아트 엔지니어링학과는 뉴욕대학교(NYU), 남가주대학교(USC)와 함께 미국 전체 게임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최상위로 평가받아 왔다. 게임 전공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생들은 송도 아시아캠퍼스에서 3년, 미국 솔트레이크 캠퍼스에서 1년을 공부한다.

시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7402

2024년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유치

2024년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인천시에서 열린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부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다. 오는 7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2박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전국 3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유관 단체, 일반 국민 등 5만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3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우리 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우리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세대 내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1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방법이나 유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508

2022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2023. 2. 15.(수) 09:00 ~ 3. 14.(화) 18:00

지원대상
①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②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공심야약국 2배 증가, 26개소 운영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13개소에서 2배 증가해 8개 구에 26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제기됐던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5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언제나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 2026년 개원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착공돼 의료 정주 여건 개선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산·학·연·병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8만 5,800㎡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12월 개원이 목표다. 지난해 2월부터 건축 설계에 착수했으며, 최근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하게 되었다. 시 IFEZ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7394

I-MOD 종로 지역에 대체 버스 노선 운행

스마트챌린지 시범사업(I-MOD)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시범 운행 지역인 송도·영종국제도시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이용 수요가 빈번한 해양경찰청 인근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노선을 재편하고 순환41번, 순환42번은 각각 8대에서 12대로 증차한다. 또 영종국제도시는 신규로 공영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해 5대를 운행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3,000명이 올해 23개 협력병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우리 시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 돌봄과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 복지정책과 032-440-3462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우리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4만 6,646명을 목표로 총 1,7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생건강지킴이, 아침이 행복한 학교, 학교 시설 야간관리원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노인주유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노인 일자리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아암대로·연안부두 해안산책로 개방 임박

우리 시는 시민이 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감상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산책로는 물론 전망대가 조성되어 더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해양친수와 032-458-7157

군부대 부지, 시민 품에서 재탄생

부평구 산곡동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 군부대 시설이 통합·재배치됨에 따라 113만㎡ 부지가 시민들의 주거·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제3보급단과 507여단 부지는 공원과 녹지 70%, 공동주택 30% 수준으로 개발되며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은 공원으로, 서구 공촌동 남동구예비군훈련장은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 캠프마켓과 032-440-4682



COUNCIL NEWS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신년 인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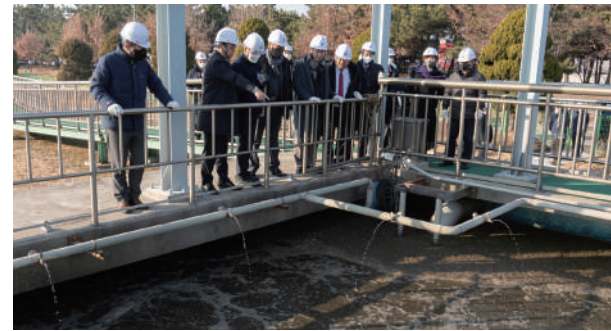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회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이후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231건 처리는 물론 총 746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며,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차세대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스타트업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차세대 스타트업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 등과의 협업 기회 마련을 통해 스타트업의 발전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 지역 소관 기관 현안 사업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서구 지역 소관 기관 현안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와 노을진캠핑장, 제3연륙교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정해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수시로 소관 기관 점검에 나서 시민 불편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인천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의정환울네트워킹(의정정보화 사업) 구축 사업’은 정보화 및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 내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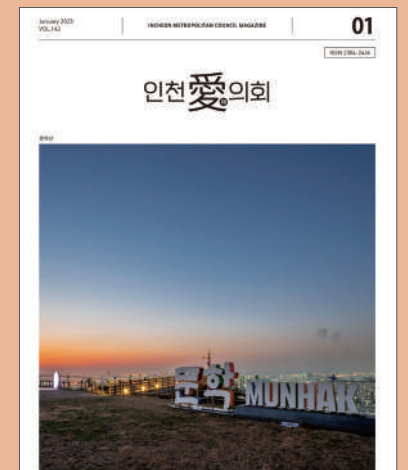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립특수학교인 미추홀학교와 청신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과대·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민과의 소통 및 학교 부지 확보 등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설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시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이나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적절한 상담과 교육 등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愛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愛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愛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광역시의회 SNS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대상

- 이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자녀부터 지원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
-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
- 다만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 산모 등은 첫째 자녀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내역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영양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체조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청결 관리,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정보 제공: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바우처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문의: ㉠ 032-440-3223

2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용

: 인천시, 올해 역대 최대 규모 2,127대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지원 내역

- 전년 대비 373% 증가한 1,071억 원 예산 편성, 승용차 대당 3,250만 원 지원
 - 올해 인천에 수소충전소 8개소 준공, 14개소로 확대 예정
- 지원 대상
- : 구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 단체로 수소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구매 보조금

: 승용차는 대당 3,250만 원, 버스는 3억 ~ 3억 5,000만 원, 화물차는 4억 5,000만 원

구매지원 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문의: ㉠ 032-440-4304

3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천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함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역할

- 인천시: 위기의 아동·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 파산 신청 등 다양한 상속 채무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문의: ㉠ 032-440-4902



4

제물포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내용: 수봉도서관이 지하철 1호선(경인선) 제물포역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함

이용 방법

- 수봉도서관 책이음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1인당 2권의 서적을 2주간 빌려 볼 수 있음

문의: ㉠ 032-440-7873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5

연수문화원 봄 학기 수강생 모집

내용: 인문, 전통, 공연, 시각 등 예술교육 강좌 다수

강좌 기간: 3월 2일~5월 31일

접수 기간: 2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교육 장소: 연수문화원 강좌실

참여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강좌별 상이

모집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www.yeonsu.go.kr/culture

문의: ㉠ 032-821-6229

6

공항신도시 주민 주차 편의제공

내용: 공항신도시 주택가에 위치한 은골1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에서 유료 월 정기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

- 공항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장기 주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 야기

- 은골마을 주민 주차면 우선 배정과 할인 혜택 제공

문의: ㉠ 032-453-7775

7

송도컨벤시아 행사 안내

홈·리빙 & 생활용품 전시

일시: 2월 17일~1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3홀, 4홀

비용: 1만 원, 중·고등학생 6,000원

문의: ㉠ 02-6121-6388

코베 베이비페어 & 유아교육전

일시: 2월 23일~26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3홀, 4홀

비용: 1만 원, 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6121-6458

8

인천시립교향악단 시즌 프로그램

① 새로운 황금시대를 제시하다 ‘뉴 골든 에이지’

- 5월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지휘 이병욱, 첼로 협연 심준호

- 6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 지휘 이병욱, 피아노 협연 존 오코너

② 거장과 조우하다 ‘거장의 숨결’

- 4월 봄 위에서 노래함: 지휘 이병욱, 소프라노 협연 황수미
- 11월 겨울의 문턱에서: 지휘 이병욱, 바이올린 협연 윤소영

③ K-클래식의 현시점을 조명하다 ‘클래식 나우’

- 3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편: 지휘 최수열
- 12월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편: 지휘 이병욱

④ 피아니스트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다 ‘피아노 열전’

- 7월 피아니스트 임주희 편: 지휘 이병욱
- 9월 피아니스트 박재홍 편: 지휘 이병욱

⑤ 독일 낭만 음악 안에서 거닐다 ‘고전적 낭만’

- 바그너, 베버, 브람스: 지휘 이병욱, 바순 협연 김민주

⑥ 선물 같은 음악을 나누다

- 밸런타인데이 콘서트, 사랑태교음악회, 청소년음악회, 가족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문의: ㉠ 032-438-7772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9

인천아트센터 기획 공연 라인업

① 월드 오케스트라

- 4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초청 공연: 지휘 정명훈, 피아노 협연 조성진
- 일자: 3월 4일

② 앙상블 & 리사이틀

- 4월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 6월 짐머만 콰르텟
- 7월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 10월 다니엘 뮐러 쇼트 첼로 리사이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 엔리코 파체, 도로시 밀즈 & 스테판 테밍
- 11월 윌리엄 크리스티 & 레자르 플로리상

③ 시리즈 공연

- 콘서트 오페라 I ‘모차르트_돈 조반니’
- 콘서트 오페라 II 해리 비켓 & 잉글리시 콘서트 ‘헨델_로델린다’
- 토요 스테이지 ‘최후의 클래식 쇼스타코비치’
- 마티네 콘서트
- 김정원의 낭만가도 ‘시간여행’
- 작곡가 시리즈 ‘드보르작’
- 퇴근길 콘서트
- 옥탑재즈
- 드라마 시리즈: 깊이예의 권유

④ 패밀리 & 키즈

- 청소년음악회
- 어린이극
- 패밀리 콘서트: 콘서트 발레

⑤ 스페셜 콘서트

- 송년음악회 KBS교향악단 ‘베토벤 합창교향곡’
- 문의: ㉠ 032-453-7191

10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 확대

내용: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함

기존 보장 내역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 강도 상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 자연재해 사망

변경 보장 내역

- 사회 재난 사망 신규 보장 항목 신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의 사망 보장금 1,000만 원 지급
-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 증액: 기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

청구 방법: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

문의: ㉠ 032-440-5732

11

겨울철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내용: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가입 안내

DB손해보험 ㉠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KB손해보험 ㉠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문의: ㉠ 032-440-3359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2

고금리로 힘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내용: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총 1조 1,9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

- 이자 차액 보전(9,600억 원): 은행 금리 이자의 일부 지원
 - 매출채권보험(1,600억 원):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
 - 협약보증지원(400억 원):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 능력이 미약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
 - 구조고도화자금(350억 원):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 구입, 공장 확보를 위한 용자를 지원
- 대상: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
- 신청 방법: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BizOK

㉡ <http://bizok.incheon.go.kr>

문의: ㉠ 032-440-4922

1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내용

: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단, 일부 시설 제외)

마스크 착용 유지 시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는 마스크 착용 유지

-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14

도서관 행사 안내

미추홀도서관_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편집 & 동영상 제작

일시: 2월 7일~16일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어르신

문의: ㉠ 032-440-6668

내 문장 제대로 쓰고 다듬는 법

일시: 2월 18일 오후 2~4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440-6668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드림캐처 만들기

일시: 2월 25일 오전 11시~오후 1시

대상: 어린이 및 보호자

문의: ㉠ 032-440-6668

청라호수도서관_호수 글모임과 함께하는 감성 글쓰기

기간: 2월 6일~27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성인

문의: ㉠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_미술사와 함께 과학 미술

기간: 2월 7~14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문의: ㉠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_책과 함께하는 클레이 아트

일시: 2월 13일~16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문의: ㉠ 032-746-9037

클래식 인문학 ‘방랑, 프란츠 슈베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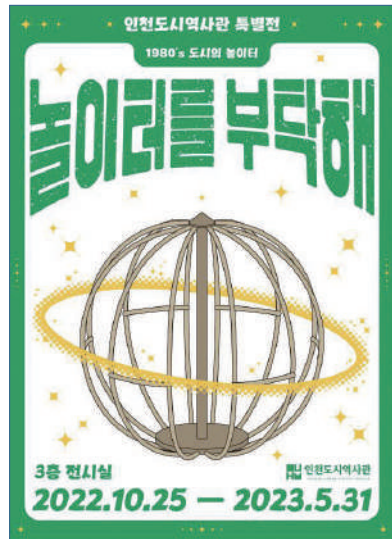
기간: 2월 25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성인

문의: ㉠ 032-746-9037



신나는 겨울방학, 뭐 하면 좋을까?



타임머신 타고 1980년대로 ‘놀이터를 부탁해’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 | 5월 31일까지 | ☎ 032-850-6000

놀이터는 아이들에겐 재미있는 공간으로, 어른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기억된다.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는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1980년대 도시의 놀이터를 콕이브 작가와 이웅렬 디자이너가 의기투합해 재해석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미끄럼틀, 뽕뽕이, 철봉, 정글짐을 ‘우주로 미끄럼’, ‘뽕뽕 토성’, ‘은하수 봉’, ‘테트리스짐+ 1·2·3’ 등으로 선보이는 한편, 실제 이용도 가능하다.

신나는 시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이 인형과 고무 물총 등 옛날 장난감과 문구류를 전시한 ‘인천문방구’, 그 시절 상점의 물건을 모아놓은 ‘도시슈퍼마켓’, 갤러리와 테트리스 등의 게임 영상을 감상하는 ‘88오락실’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궁금한 건 못 참는 도로시와 함께 알아보자! 성교육 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15·16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10분 | 전석 1만 5,000원 | ☎ 02-882-9001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곤 한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멋진 모험을 마치고 지혜와 용기, 따뜻한 심장을 얻은 도로시와 친구들 역시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렇게 큰 내가 엄마 배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걸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 속 주인공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성교육을 차근차근 진행한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유쾌한 음악에 어깨를 들썩이다 보면 어느새 어렵게만 느껴지던 성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하나 해소된다.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자꾸만 움츠러들지만 이불 밖을 과감히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겨울방학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인천 곳곳의 다양한 문화 체험에 도전하다 보면 추위는 어느새 달아나고 잊히지 않는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새록새록 쌓일 터. 남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엘사와 안나를 만나러 떠나다 가족 뮤지컬 ‘겨울왕국: 겨울 이야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 2월 25일 오후 2·4시 | 전석 1만 9,800원 | ☎ 032-439-5001

겨울이 되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한 번쯤 다시 보게 된다. “렛 잇 고~ 렛 잇 고~” 하며 노래까지 따라 부르며 온 마음으로 열렬히 감상하곤 한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엘사와 안나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을 얼려 버리는 능력을 지닌 엘사, 그리고 귀여운 동생 안나. 그런데 엘사의 실수로 안나의 심장이 멈추고, 엘사는 마법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무대에서 생생한 노래와 춤이 펼쳐지는 뮤지컬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겨울방학을 맞아 풍성한 볼거리로 새 단장 인천어린이과학관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신규 전시물로 새 단장을 하고 기획전시와 사이언스 매직 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먼저 지구마음은 입구에 물고기와 산호 등의 미디어아트를 설치하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며, 점박이물범 등 인천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소개한다. 그다음 비밀마음은 수학자 파스칼의 방과 물리학자 뉴턴의 방을 마련해 여러 가지 수학 원리를 몸소 배울 수 있게 했다.

한편, ‘모든 사물의 역사 III: 학교’ 기획전시도 열린다. 볼펜, 칠판지우개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물 21종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또 2월 매주 일요일 사이언스 매직 쇼 ‘미술사 제이티의 과학실험실’이 열린다. 과학에 미술을 접목한 공연으로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기획전시
‘모든 사물의 역사 III: 학교’
4월 30일까지
☎ 032-456-2500



사이언스 매직 쇼
‘미술사 제이티의 과학실험실’
2월 5·12·19·26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전석 2만 5,000원 | ☎ 032-456-2500



02 Culture Calendar

※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관람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관람 전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전시

2022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기념
‘김동우 사진전: 편도,
몽우리들을 찾아서’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2월 5일까지
☎ 032-440-6733



SPACE
Symphony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3월 26일까지
☎ 032-729-5116



놀이터를 부탁해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
5월 31일까지
☎ 032-850-6000



신도, 시도, 모도
- 따로 또 같이,
세 섬이 하나로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2월 19일까지
☎ 032-440-6733



모든 사물의 역사 Ⅲ
: 학교
인천어린이과학관
4월 30일까지
☎ 032-456-2500



Re-wild garden
: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 032-850-6031



이달의 공연

04 토
친정엄마와 2박 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4일
오후 2-6시,
2월 5일 오후 2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66-7754



05 일
이도훈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2월 5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11 토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11일
오후 6시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 070-4190-1289



12 일
디에스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월 12일
오후 3시
무료
☎ 010-8954-7618



14 화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14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1588-2341



15 수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2월 15일
오전 10시 40분
개인 2만 원, 단체 8,000원
☎ 032-439-5001



17 금
이은결 ‘더 일루션
마스터피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17일
오후 7시 30분,
2월 18일
오후 2-6시 30분,
2월 19일
오후 2시
R석 8만 8,000원,
S석 7만 7,000원
☎ 1566-6551



17 토
2023 클래식 시리즈
첼리스트 홍진호
‘사랑의 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월 18일
오후 5시
전석 2만 원
☎ 032-420-2737



24 금
2023 YB TOUR
LIGHT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24일
오후 7시 30분,
2월 25일
오후 5시
VIP석 13만 2,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11만 원
☎ 1566-6551



26 일
송도청소년교향악단
& 청라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26일
오후 6시
전석 1만 원
☎ 032-819-0505



윤지효 하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 032-289-4275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이달의 드로잉 서구 어느 골목에서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이성미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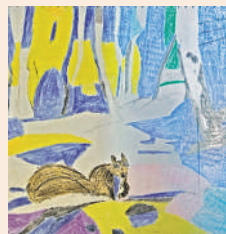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가울갤러리와 문화충전소를 운영하며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참살이미술관, 강호갤러리 등에서 개인전과 초대전 20여 회를 열었으며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 인천아시아아트쇼 등 국내외 다수의 아트페어는 물론 300여 회 단체전에 함께했다. 현재 서구문화예술인회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서부여성회관 수채화 강사와 연희센터, 가좌센터의 미술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성미 작가의 채색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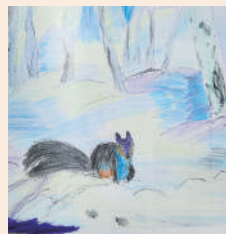
▷ 2023년 1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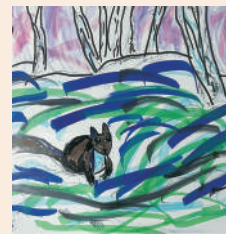
노시한 서구 서달로



심윤찬 연수구 하모니로



엄지영 연수구 아카데미로



이효진 서구 청마로



홍성수 연수구 해둔이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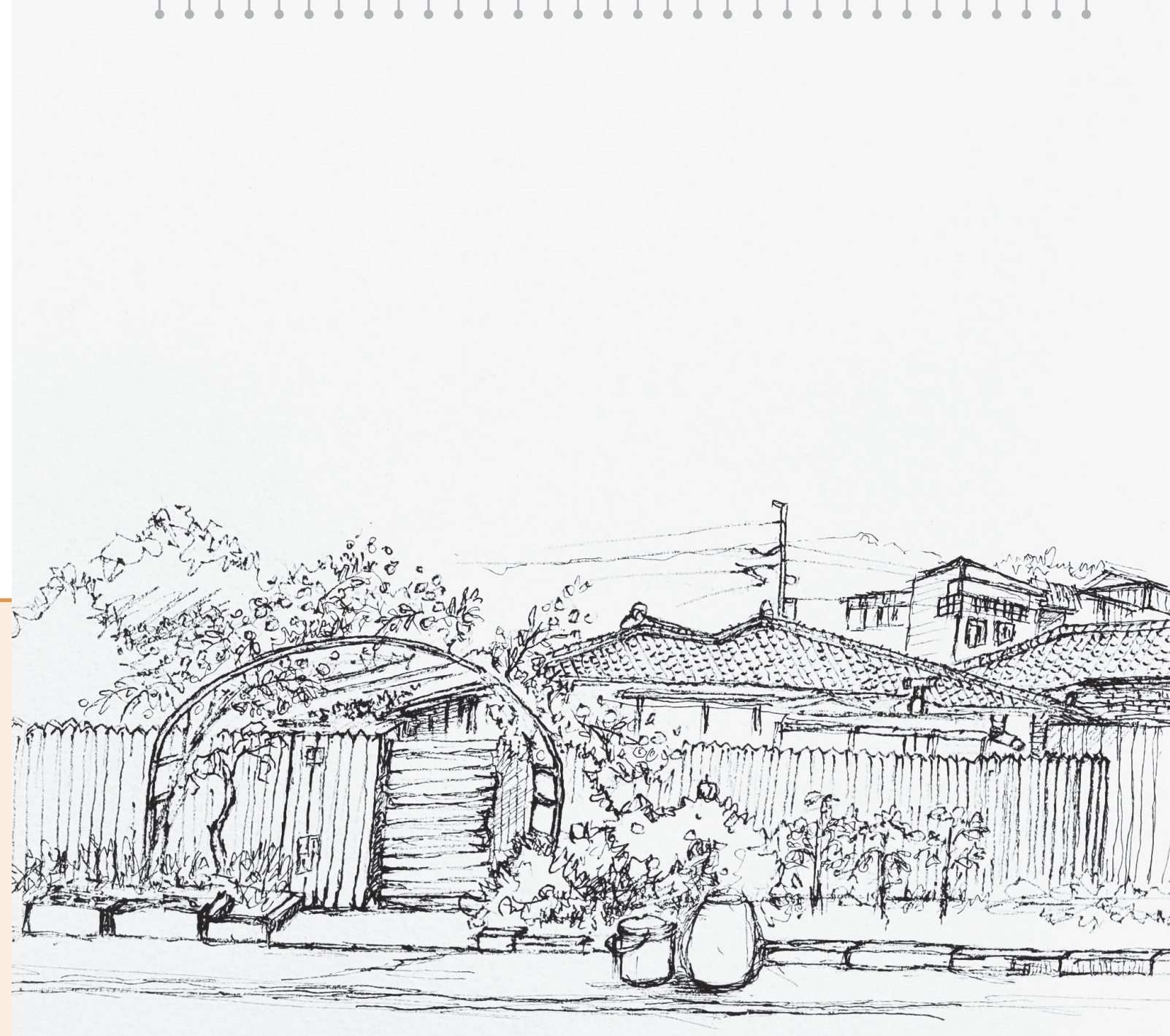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원도심 골목을 거닐다보면 느껴지는 포근함이 있다. 나는 이런 풍경을 좋아한다. 아마도 나의 고향과 같은 따뜻한 정서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리라. 작업하다 잠시 쉬고 싶어서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선다. 어느 골목 한편, 정겨운 모습의 집 앞에 계절을 잊은 빨간 장미 넝쿨이 하얀 눈을 맞고 있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눈, 이색 조합에 한참 동안 마음을 빼앗겼다. 눈송이가 쌓인 장미는 그 어느 계절보다 아름다워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인천시민의 시선

기용섭 중구 신도시북로



♥ Q A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앞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삼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폭풍 성장한 걸 실감하게 되더군요.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졸업축하 #새로운시작 #씩씩한청소년 #소중한꿈

최은순 연수구 한나루로



♥ Q A

눈 오는 날, 어른들은 길 미끄럽고 막힌다며 투덜투덜 대는데, 아이들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 바쁘네요. 순수한 모습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눈오는날 #아이들에겐신나는날 #어른들에겐힘든날

한정철 경기도 군포시



♥ Q A

난생처음 차이나타운에 가봤습니다. 원조 짜장면에 맛있는 간식까지, 모처럼 기분 좋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골목에 부는 바람이 쌀쌀했지만 그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이나타운첫방문 #원조짜장면 #간식까지폴코스

이주은 부평구 부흥로



♥ Q A

학창 시절부터 문턱이 닳도록 자주 가던 신포우리만두. 30년 '쫄' 단골의 추천 메뉴는 바로 비빔만두. 바삭하고 따뜻한 만두에 쫄깃하고 매콤한 쫄면의 조화가 금상첨화.

#신포우리만두 #쫄단골추천메뉴 #뭐니뭐니해도비빔만두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설날 덕분에 새해 '리셋'

설날 덕분에 계묘년 새해 결심을 '리셋'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일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 찝찝했는데 설날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새해 들어 <굿모닝인천> 독자와 인천시민들께서 새로운 기획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회 '두루미' 이야기가 나간 뒤 '잡지가 더 튼실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환경은 미래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이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깨끗한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2023년은 <굿모닝인천>과 함께 인천의 환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잘 지킬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公明 김진국 -

<굿모닝인천>의 오래된 약속

학창 시절 손에 익은 필기구의 감촉은 제법 오래 갑니다. 손가락 한가운데 볼록하게 박힌 굳은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 엄지로 굳은살 자리를 만지작거리니 '램프의 요정'처럼 추억이 평하고 떠오릅니다. 감지 숙제, 원고지에 꺾꺾 눌러쓴 독후감, 연필심 닳을까봐 살살 돌리던 기차 모양의 연필깎이까지...

문득 추억의 문구가 그림이라면 평리단길(부평 문화의 거리)의 '남창문구사'를 가보세요. Since 1945. 무려 일흔일곱 살입니다. 대를 이은 노포처럼 단골도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아이들 손잡고 들른 어른도 추억의 문구에 마음을 뺏깁니다.

물건 하나에 삶 하나. 세상이 변했다지만,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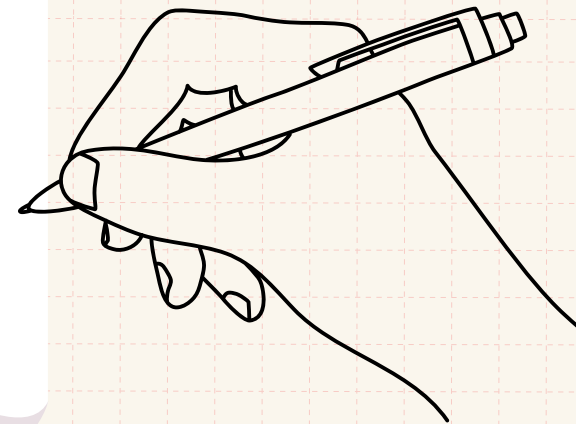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은 인천의 오래된 풍경을 계속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 추억의 문구점에서, 최은정 -

인천 목욕탕 취재기

"하필 이렇게 힘들 때 목욕탕을 찾아오려고 하느냐, 원망이라도 쏟아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처음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로 취재를 문의하는 전화가 너머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어느 곳보다 따뜻해야 할 공간이지만 온기를 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목욕탕 사람들 마음은 쫄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결국 함께 이겨낼 겁니다. 며칠간의 인터뷰, 밤늦도록 취재에 동행한 끝에 건넌 협회 사무국장님의 말은 파스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취재하는 거 보고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목욕업은 더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에 따듯이 맞아주신 목욕업 종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욕을 하면 체온이 1℃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동네 목욕탕에서 '37.5℃'의 온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나세요.

-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 정경숙 -



우리나라 최초 군함 입항 120주년과 국제인 3대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항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1990년대 초중반 신포동 외환은행 옆 ‘난다방’엔 풍채가 좋은 어르신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퍼머넌트 웨이브를 한 것 같은 멋진 헤어스타일, 헛살처럼 화사한 웃음의 주인공은 인천 최초의 외과의사인 한웅 신태범(1912~2001) 박사였다. 의사이면서도 인문학적 교양이 상당히 높았던 신 박사는 기자들이 궁금한 인천의 역사, 문화, 현상에 대해 호탕한 웃음과 함께 명쾌한 답을 내주곤 했다. 다방을 드나들면서 그의 부친이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군함의 함장이자 선장 신순성(1878~1944)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순성 함장이 탄 우리나라 최초 근대 군함이 인천항에 닿을 내린 때는 1903년 4월 15일이다. 고종은 3,000여 톤에 달하는 조선 최초 군함의 이름을 양무호^{揚武號}라 명명한다. ‘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뜻이다. 조선 국방 예산 30%의 거금으로 구입한 양무호는 그러나 군함이라기보다 노후한 화물선에 가까웠다. 1888년 영국 디슨사가 건조한 화물상선을 1894년 일본 미쓰이(三井) 물산이 사들여 일본-홍콩 간 석탄 운반선으로 사용하던 배였던 것이다. 일본은 이 배에 구식 함포 4문 정도만 달아 군함이라고 팔아먹었는데, 배가 워낙 낡은 데다 운항 기술도 전수해 주지 않아 신순성 함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양무호에 대한 비판 속에 조선 조정은 일본에 새로운 군함을 주문, 1904년 12월 20일 1,056톤 급 광제호^{光濟號}를 인도받는다. 광제호는 3인치 포 3문을 장착해 해안 경비와 등대 순시, 세관 감시 등 다목적으로 운용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

선통신도 바로 이 광제호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광제호 운영권 또한 우리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선장과 기관장을 일본인으로 추천하고 신순성 함장을 1등 항해사로 강등시킨 것이다. 동경상선학교에서 근대식 기선 교육을 받고 광제호 인수 전 해군 장교로 임관된 그는 낙담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광제호는 관세국 소속 세관 감시선 처지로 전락한다. 그렇지만 일제의 강제 한일병합 전까지 광제호는 태극기를 내리지 않았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되기 전날 밤, 신 함장은 결국 광제호의 태극기를 거두었고 지금까지 신 씨 집안이 보관 중이다. 신순성 함장은 장남 신태범 박사에게 “나는 일본인한테 직위와 배까지 빼앗기며 일했지만 너는 일본인 아래서 일하지 말고 독립적인 의사를 해라”라고 말한다. 문필가나 외교관이 꿈이었던 신태범 박사는 결국 경성제대 의학부를 나와 의사의 길을 걷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조계지인 중앙동(신포동)에서 ‘신외과’를 개업한 신태범 박사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채 독야청청 ‘조선인 의사’로 인술을 펼친다. 광복 후엔 <인천 한 세기>, <반사경>, <먹는 재미 사는 재미> 같은 인천의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에 관한 저서를 남겼다. 신 박사의 장남 신용석은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을 지내며 <직지심경> 특종 등 기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위원장을 지냈다. ‘신순성-신태범-신용석’으로 이어지는 ‘국제인 3대’의 흔적은 지금 신포동 ‘떼아뜨르 다락’에 마련한 ‘한웅사랑방’에서 만날 수 있다.



소원과 달집태우기

우리 가족의 건강을 빕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밝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한지에 꺾꺾 눌러쓴
새해의 소원이
숫대 새끼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저 염원들은
연기가 되어 마침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올해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 2023년 1월 전등사 -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